

5·18 신인 문학상 동화 부문 당선작

종이 주먹밥

박서현

-너 어디? 나 집 왔어. 지금 불래?

미래였다. 가족여행을 떠난 미래가 드디어 돌아왔다. 더운 나라에서 얼굴이 잔뜩 탔을 미래를 떠올리니 웃음이 났다.

할머니 방문에 귀를 살짝 가져다 뒀다. 아까부터 조용한 걸 보면 낮잠 중일 확률이 높았다. 잠깐 정도면 나갔다 와도 괜찮을 것 같았다.

나는 곧장 집을 빠져나왔다. 밖은 생각보다 추웠다. 놀이터엔 아무도 없었다. 구석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안으로 들어가 바람을 피했다. 미래에게 걸옷을 부탁한다는 문자도 잊지 않고 보냈다.

잠시 후,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걸어오는 미래가 보였다.

“서미래! 여기야! 여기!”

반가운 마음에 두 팔을 번쩍 들었다. 미래도 활짝 웃으며 내게 달려왔다. 미래는 두툼한 패딩 점퍼와 커다란 비닐봉지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야, 너 때문에 집에 다시 갔다 왔잖아.”

미래는 툭툭대면서도 점퍼를 내 어깨에 걸쳐줬다.

“미안, 미안. 급하게 오느라. 근데 너 하나도 안 탔네?”

미래는 비닐봉지에서 야자수 그림이 그려진 과자봉지를 꺼내 들었다.

“말도 마. 바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미래가 과자를 와작와작 씹어댔다.

내가 집에 갇혀 있는 동안 미래는 머나먼 더운 나라의 호텔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고 한다. 인터넷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과 일주일 내내 말이다.

“여행 가기 전부터 할머니한테 감기 기운 있었다. 근데 티켓 값 아깝다고 그냥 간 거래. 말이 되니? 저번에도 감기 심해져서 입원했으면서. 엄마는 할머니 간호하고 아빠는 병원 찾느라 바쁘고. 진짜 지옥이었어.”

미래가 마지막 과자를 입에 넣으며 질렸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미래의 마음은 백번 이해한다. 내가 집에 갇혀 있는 이유도 미래랑 다를 게 없었으니까.

“야, 여행을 간 게 어디냐. 나는 방학 내내 집에만 있었잖아.”

거기다 나는 현재 진행형이다. 미래의 지루한 여행은 끝났지만 내 지루한 방학은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아있다.

미래가 이제 생각났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할머니 계속 아프셔? 아예 누워계시는 거야?”

“뭐 그렇지.”

나는 한숨을 쉬며 두 번째 과자를 꺼냈다. 망고가 그려진 봉투에는 말린 망고가 들어있었다. 달달한 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한꺼번에 집어 먹다가 미래와 눈이 마주쳤다. 미래는 배시시 웃더니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 손목에 걸었다.

“가져가서 먹어. 망고 많이 있으니까 할머니랑 같이 먹어. 우리 할머니 다른 건 안 먹어도 그건 좀 먹더라고.”

미래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살았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엄청 잘 알고 있다. 나랑 친해진 것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미래의 할머니는 몸이 약해서 항상 감기를 달고 산다. 우리 할머니랑은 다르다. 우리 할머니는 함께 살게 된 후로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프다. 마음이 아파서 혼자 두면 안 된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제일 만만한 내가 방학 내내 할머니 옆에 붙어 있는 수밖에 없다.

입안 가득 찬 망고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띠리리리, 시끄러운 소리가 울렸다.

“응, 엄마?”

미래가 전화를 받았다. 시간을 확인하니 벌써 1시간이 지나 있었다. 집에선 시간도 안 가더니 이럴 때만 빨리 간다.

“그만 가 봐야겠다.”

전화를 끊은 미래가 미안하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시무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래랑 헤어지자마자 마음이 급해졌다. 집을 너무 오래 비워둔 것 같았다. 마음 따라 다리도 빨라졌다. 헐레벌떡 뛰었더니 몸에 열이 올랐다. 다행히 집은 조용했다. 정말, 조용하기만 했다.

“할머니!”

집은 도둑이 들었다고 오해할 만큼 엉망이었다. 방에서 빠져나온 물건들이 거실에서 부엌으로 이어졌다.

치이익! 밥솥에서 연기가 새어나왔다.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식탁을 가득 채운 쟁반 위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먹밥이 산처럼 쌓여 있다. 할머니는 맨손으로 막 지은 밥을 동그랗게 뭉치고 있었다.

“할머니! 또 왜 그래!”

우선 바닥에 놓인 쓰레기부터 주웠다. 동그랗게 말린 양말 뭉치나 휴지 덩어리, 구겨진 종이 뭉치는 주워도 주워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런 걸 치우기 위해 집에 갇혀 있었던 거나 다름이 없다.

할머니는 자신이 뭉쳐 놓은 양말이 내가 전날 벗어 놓은 양말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할머니에겐 그저 주먹밥일 뿐이다.

“정애야, 너도 언능 만들어라. 밥 식기 전에 만들어야지.”

할머니가 흘러내리는 소매를 걷어 올렸다. 힘을 내겠다는 소리다. 나를 송이가 아닌 정애라고 부르는 걸 보면 집에 있는 쌀이 바닥을 보일 때까지 밥을 짓고 주먹밥을 만들겠다는 거다.

나는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의 손바닥이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할머니, 손 또 데였잖아! 그만 좀 해!”

가슴이 답답했다. 할머니는 손에서 주먹밥이 돌아갈 때마다 입으론 후, 후 박자까지 맞췄다. 화를 내고 싶어도 어떻게 화를 내야 할지 몰라 한숨만 나왔다.

예전에는 봄에만 잠깐 아팠다고 했다. 그때는 할머니도 별수 없이 병원에서 지냈다. 그래서 어버이날엔 할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굳이 내려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없다.

그 후 오월이 올 때마다 엄마는 전화를 받고 다급하게 광주로 내려가는 일이 많아졌다. 처음엔 오월만 걸려오던 전화가 어쩔 땐 더위가 찌르는 팔월이나 눈이 소복이 쌓인 일월에도 걸려왔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해 겨울이 끝나기 전, 우리 집엔 할머니 방이 생겼다.

땡동-

할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다.

땡동- 땡동-

“오메, 정애야.”

할머니가 집먹은 얼굴로 나를 붙잡았다. 반복되는 소리에 겁을 먹은 거다.

“아냐, 할머니. 괜찮아.”

보통 이 시간에 울리는 초인종은 반응이 없으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나는 할머니를 잡아끌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자. 충분히 많잖아. 봐, 봐. 가득 쌓였네.”

주먹밥이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팔을 뻗었다. 그 순간, 어설픈게 쌓여 있던 주먹밥 하나가 굴러 떨어졌다. 할머니는 인상을 구겼다.

“아따, 정애야. 조심 해야지.”

할머니는 주먹밥 산을 재정비했다. 그래봤자 엉성한 건 변하지 않았다.

“쫓, 허기도 못 채우것구만. 겨우 이 정도로 뭘 그르냐.”

할머니의 손이 다시 바쁘게 움직였다. 소금간만 된 투박한 주먹밥이 빠르게 만들어졌다. 크기만 크고 급하게 만들어서 손자국이 그대로 보이는 엉성하기 짝이 없는 주먹밥이었다.

“뭐하고 있냐. 언능 앞치마 들고 와야. 한시가 바쁘디!”

할머니가 주먹밥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이럴 땐 엄마도 어찌지 못한다. 그냥 만족할 때까지 내버려 두어야 한다. 이러니 미래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다. 아픈 할머니여도 다 같은 할머니가 아니니까.

“할머니, 제발. 결국 혼나는 건 나란 말이야!”

할머니에게서 주먹밥을 억지로 빼앗을 때였다. 멈춘 줄 알았던 초인종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땡동- 땡동- 광광광-

“아이고, 정애야!”

아까보다 큰 소리에 할머니가 귀를 막고 쪼그려 앉았다.

나는 얼른 현관으로 달려 나갔다.

“누구예요! 왜 자꾸 놀러요!”

현관문을 열었다.

“송이야…….”

그곳에 미래가 있었다.

“무슨 일 있어? 화내는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려서…….”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미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집안을 들여다봤다. 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꼴꼴이 세웠다. 미래에게 영망이 된 거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왜 왔어?”

미래의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우물쭈물하던 미래의 손가락이 패딩 점퍼를 가리켰다.

“……옷. 그거 언니 거라 가져가야 해서.”

“옷?”

생각해 보니 미래 옷을 지금까지 입고 있었다. 옷만 벗어주면 되는구나. 안심이 됐다. 당장 옷을 벗어주고 돌려보내면 그만이다. 설명은 다음에, 변명 거리를 생각한 후에 사과랑 같이 하면 된다. 그때 뒤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정애야, 그놈들이냐?”

식탁 밑으로 숨었던 할머니가 은쟁반으로 얼굴을 가리며 걸어 나왔다. 미래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현관 안으로 한 발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송이 친구 미래라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 올린 미래의 눈이 약하게 흔들렸다.

가끔 찾아오는 이모들도 밖에선 옷다가 집으로 들어 오면 놀란 눈이 돼버린다. 내겐 익숙해져 버린 동그란 쓰레기가 이모나 미래에겐 놀랄 만 한 일인 거다.

굳어 있던 할머니의 얼굴이 원래 자리를 찾아갔다.

“어린 애잖아. 정애 니가 데려왔냐?”

할머니는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미래를 쳐다봤다.

“뭐 됐다. 손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지.”

할머니는 주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송이야? 할머니 왜 저러셔?’

미래가 껏속말을 해왔다. 말을 하면서도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나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왔으면 언능와서 이것 줘 거들어라!”

할머니가 고개만 살짝 빼 들고 우리를 재촉했다. 미래는 주춤거리며 신발을 벗었다.

가능하면 미래를 이대로 돌려보내고 싶었다. 나를 송이가 아닌 정애라고 부르는 할머니를 미래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았다. 양말 몽치가 나뉘는 거실도, 주먹밥으로 엉망이 된 부엌도.

“우와...!”

미래가 산처럼 쌓인 주먹밥을 신기하게 쳐다봤다.

“정애야, 언능 앉아라. 다 같이 만들어야 하나라도 더 먹이지.”

또 정애다. 미래가 고개를 가웃하며 나를 바라봤다.

“미래야 그냥 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았다. 미래를 현관 쪽으로 밀었다.

“송이야, 잠깐만.”

“어서 가.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그때였다. 띵리리리리리- 미래의 호주머니에서 휴대폰 소리 크게 울렸다. 나는 아차 싶었고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할머니가 달려왔다. 내가 설명할 틈도 없이 사색이 된 얼굴로 나를 끌어안았다. 쌀알이 덕지덕지 묻은 빨간 손가락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안 된다. 정애야. 어서 피해.”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겁에 질려 있었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할머니의 팔은 밀어내려 하면 할수록 내 몸을 죄어 왔다. 절대 놓아 주기 싫다는 듯 할머니가 나를 꼭 끌어안았다.

“나쁜 놈들!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쁜 놈들! 정애야, 죽지 마라. 정애야.”

정애는 할머니와 함께 주먹밥을 만들었던 친구의 이름이다.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 비슷한 시기에 시집을 간 둘도 없는 친구라고 했다. 총알이 친구의 머리로 날아든 날, 할머니는 친구의 피로 붉게 물든 주먹밥을 보며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떨어졌다고 한다. 그 후로 작은 경적 소리만 들려도 할머니는 몸을 떨었다.

“할머니, 괜찮으니까 이것 좀 놔 봐! 할머니!”

“정애야, 정애야. 불쌍한 우리 정애.”

“할머니 제발 좀!”

할머니가 껍껍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눈앞이 아찔했다. 머리에서 쥐가 나는 기분이었다. 미래가 겁을 먹고 뛰쳐나가도 할 말이 없었다. 눈앞이 부영게 흐려졌다. 나도 할머니처럼 울고 싶어졌다. 할머니가 미워서 건딜 수가 없었다.

“서미래! 너 빨리 가! 어서 나가!”

할머니 팔에 가려 미래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다. 휴대폰 소리도 지금 막 꺼진 걸 보면 아직 근처에 있는 게 틀림없다.

“어서가 버려. 우리 할머니 지금 아프니까, 빨리 나가!”

심한 말이라도 해서 미래를 쫓아내고 싶었다. 어찌면 이미 현관문을 뛰쳐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차라리 그게 나을 거다.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최악이니까.

그런데 이상했다. 할머니의 고향 사이에 미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송이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미래가 할머니의 한쪽 팔을 붙잡았는지 앞을 볼 수 있었다. 웃고 있는 미래가 보였다. 눈은 잔뜩 굳어있으면서 입으론 웃고 있는 이상한 표정의 미래가 있었다.

미래는 울고 있는 할머니를 위로했다.

“할머니, 저 보세요. 여기 정애, 정애도 보세요. 완전 건강해요! 그치 정애야?! 봐요, 할머니.”

미래가 필사적으로 나를 흔들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움직이라는 신호 같았다.

“맞아, 맞아. 할머니. 나 괜찮아. 완전 멀쩡해. 그니까 울지 마. 그만 울자. 응?”

할머니의 목을 세계 끌어안았다. 그러자 미래도 할머니의 등을 끌어안았다. 우리는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다.

“할머니, 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정애도, 정애도 괜찮아. 진짜 괜찮아. 봐, 봐. 멀쩡하잖아.”

과거에 갇혀 있는 할머니가 어서 돌아오길 빌었다.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미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길.

차츰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줄어들었다. 집안은 조용해졌고 우리는 들썩이는 할머니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거친 숨을 내쉬는 할머니가 멍한 눈으로 어딘가를 바라봤다.

“아가, 오늘이 며칠이냐?”

할머니가 초점 없는 눈빛으로 물었다.

“할머니 괜찮아? 정신이 들어?”

나와 미래는 할머니를 부축했다. 우리는 천천히 소파로 걸어갔다. 할머니는 나와 미래를 번갈아 바라봤다. 정신이 돌아 온 게 분명했다.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소파에 앉은 할머니는 발끝에 걸린 양말 뭉치를 힘없이 들어 올렸다. 양말 뭉치는 잘 만들

어진 주먹밥 모양이다.

“아가 내가 또 이랬냐?”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양말 뭉치를 조심히 눌렀다. 주먹밥을 만드는 것 같았다.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먼. 또 헛것을 보고 이런 걸 만들었어.”

미래가 양말 뭉치를 뺀히 바라봤다.

“이게 뭔데요?”

“뭉긴 뭉여. 주먹밥이지.”

할머니가 미래를 보며 살짝 웃었다. 미래도 따라 웃었다.

“아가 식탁 위에도 엄청 많던데? 할머니 예전에 장사하셨어요?”

“장사는 무신. 돈 받고 팔기에는 형편 없었지. 그냥 하나라도 먹이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뿐이었거든. 옆집 경희는 힘이 좋아서 쌀을 옮겼고 앞집 순미는 다리가 빨라 집집을 오가며 주먹밥을 배달했고. 나랑 정애는 손재주도 없으면서 주먹밥을 만들겠다고 난리를 쳤지. 그때 다 그랬어.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으니까.”

“뭘 도와요? 그때가 언젠데요?”

미래가 물었다. 할머니는 미래를 뺀히 내려 보다가 나를 보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아가, 놀랐지? 미안하다. 무서운 일을 겪게 해서.”

할머니가 미래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모르게 할머니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할머니는 과거를 회상하듯 눈을 감았다.

“우린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모여 주먹밥을 만들었지. 갓 지은 밥에서 나온 열기 때문에 방 안은 온통 찝통이었어. 그때 정애가 창문을 열었어. 바람이 불어왔고 다들 한숨 돌리며 즐겁게 웃었어. 정애가 쓰러지기 전까지 말이야. 온 세상이 붉어졌지. 정애의 몸이 붉게 물들었어. 나는 움직이지 않았어. 눈길조차 돌리지 못했지. 그저 가만히 있었어. 아무것도 하질 못했어.”

할머니가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가슴을 매만졌다. 미래는 인상을 구겼다. 자기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할머니, 방에 가자. 가서 누워.”

힘이 빠진 할머니를 부축했다. 미래도 거들었다. 방에 이불을 펴고 할머니를 눕혔다. 할머니의 감긴 눈이 파르르 떨렸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우리는 등을 맞대고 바닥에 앉았다. 집은 여전히 더러웠고 할머니가 괜찮아진 것도 아니었다. 할 일은 많고 해결된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마음 한편이 가벼웠다. 모두 미래 덕이었다. 지쳐 있는 미래의 등이 나를 단단하게 받쳐 주는 기분이었다.

“송이야.”

미래가 고개만 살짝 돌려 나를 봤다.

“응?”

미래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나 엄청 무서웠어.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우리 할머니 입원했을 때보다 무서웠어.”

나는 말해 주고 싶었다. 나도. 나도 무서웠다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래가 침울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그냥 어른들 불러오고 싶었는데 못 그러겠더라. 붙잡는 것 같아서. 가버리라는 소리가 가지 말라는 소리 같았어. 그래서 안 갔어. 나 가면 너 울어버릴까 봐.”

살짝 붉어진 눈이 나를 바라봤다.

“미안해.”

“사과 듣고 싶은 거 아니거든! 그냥 그랬다는 거야.”

미래가 코를 훌쩍이며 입을 삐죽 내밀었다. 미래를 안아주고 싶어졌다. 하지만 안아주는 건 나중에 하기로 했다. 우리는 잠시 조용히 있었다.

미래는 팔다리를 짝 뺏으며 기지개를 켜다. 미래의 팔 너머로 땅에 떨어진 주먹밥들이 눈에 들어왔다.

“저것들부터 해결해야겠다.”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미래도 나를 따라 일어났다. 우선 바닥에 어질러진 양말 몽치부터 주웠다. 미래는 휴지 덩어리를 반듯하게 만들었다. 구겨진 종이도 일일이 펼쳤다. 둘이 힘을 합치니 거실은 금세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야.”

미래가 식탁 위에 쌓여 있는 주먹밥을 보고 다시 한 번 작게 감탄했다.

타이밍 좋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말없이 하나를 베어 먹었다. 심심한 맛이였다. 미래의 손에도 주먹밥 하나가 들려있다. 미래가 인상을 찌푸렸다. 아무래도 짠 주먹밥을 먹었나 보다.

우리는 자리를 잡고 앉았다. 미래가 비닐을 벌리면 나는 주먹밥을 넣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멀리서 할머니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울퉁불퉁한 주먹밥들이 비닐봉지에 담긴다. 차곡차곡 쌓여간다. ■